

경희대학교 200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

출신고교명 (                      )      점수번호       성 명 (                      )

<유의사항>

1. 피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2. 원고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4.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5.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논술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해야 할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 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히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가요, 조선시대의 사설시조, 백자, 풍속화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고루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 최대 걸작품이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원효의 불교신앙이 또한 그러하다.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당나라 유학)을 하지 않았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들을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 된 물건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다. 그 결과, 43.5%가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2.6%는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국가 소속감에 대한 타인의 지각은 47.1%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28.6%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여긴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자신을 ‘한국인’ 및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모(母)가 아시안인 청소년과 비아시안인 청소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의 국가 소속감에 대한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모(母)가 비아시안인 청소년의 21.4%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반면, 아시안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60.0%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아시안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 61.5%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곧 혼혈유형에 따라 국가 소속감을 느끼는 자기지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흑인계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이

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없었던 반면, 외국인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37.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또한 백인계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생각하는 것이 70.6%로 가장 많았다.

각 혼혈유형에 따라 이민에 대한 생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흑인계 혼혈의 경우 전원 모두 ‘이민가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백인계 혼혈의 경우 아시안 혼혈에 비해 ‘이민가고 싶다’는 비율이 41.2%로 높았지만, ‘이민가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흑인계 혼혈에 비해 높았다.

**[다]** 프랜시스 휴(F. Hsu)는 ‘가족관계가 한 문화의 인간행동의 기본적 틀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타입이 어떠한가에 따라 문화의 핵심가치와 문화적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때 양자관계라 함은 가정 내에 존재하는 두 사람, 즉,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혹은 형제간을 말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 중심의 가정은 그 사회에 평등과 단결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창조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중심인 가정은 그 사회에 연속성과 서열이라는 문화가치를 만든다.

한성렬은 혼혈인 가정이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편견의 대상이 된 이유를 ‘우리 사회가 아버지와 아들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속에서 연속성과 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에 속하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혈,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결과 평등을 강조하는 부부관계 중심의 문화임을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가정이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전에 다문화 가정은 가정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점을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라]** 각 인종의 구성원들은 외부 인종과 결혼하기 보다는 대부분 그들의 인종 내에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동종결혼이 규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종결혼의 일반적 경향이 단지 자연적인 피부색 때문에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회피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 첫째는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의 관념, 선호, 선택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자신은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자신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 호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자란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은연 중 형성된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혼인문제에서 우리는 가족, 친구 등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결혼에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거나 못마땅해 한다면 그 만큼 결혼을 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위기이다. 어떤 사회가 특정인종을 차별하거나 전반적인 인종차별적인 상태에 있는 한 결혼은 불가피하게 동종결혼 쪽으로 기울어진다. 또한 이 경우 계급이나 수입 면에서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과 사귀거나 비슷한 배경을 가진 어떤 사람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동종결혼을 택하게 된다. 과학적 인종주의의 옹호자는 인종들은 근원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구별되는 개체군이며 따라서 인종혼합은 비자연적인 것으로서 동종결혼이 도덕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인종들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각 인종들은 실제로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도로 뒤섞여 있다.

**[마]** 윌슨은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의 마지막 장에서 사회생물학이 윤리와 관련해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의 유전자는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조상들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으며, 수천 년 이내에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퍼져 수많은 미래 인류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흩어져 나갈 것이다. 윌슨은 초연한 입장에서 진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신, 그리고 혈연이나 종족의 복리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 인류의 미래를 고려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화 이론을 올바르게 적용해 볼 경우, 우리는 유전자 풀(pool) 내에서 유전자의 다양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천재, 그리고 어떤 독특한 특성 등은 다양한 유전자의 희귀한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조합이 생겨날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다.

#### <논제 I-1>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내에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정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문 [가]의 관점을 반영해 논술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20점)

<문제 I-2>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갖는 핵심적 문제점을 요약하고 그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자 이상-300자 이하: 10점)

<문제 I-3>

제시문 [다], [라]는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공통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점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제시문 [마]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301자 이상-400자 이하: 20점)

논술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인도, 멕시코, 예멘 등에서는 올해 식량문제로 폭동이 일어났다. 아르헨티나인은 최근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토마토 불매운동을 벌였다. 야채가격이 고기가격보다도 더 비싸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항의해 하루 동안 \*파스타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주, 1 배럴에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가 올해 식량 수입가격을 급등케 했다고 보고했다. 이 기구는 또한 곡물가격의 상승은 세계적인 기아(global hunger)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석가인 알리 구어칸은 이러한 불안에 직면했을 때, “정치가들은 전체 인류보다는 우선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말한다. 그는 국제적인 협력의 부족으로 인해 “세계시장은 더 척박해지고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전 세계의 식량 재고량이 지난 35년 이래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식량가격이 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에는 식량 문제로 인한 충격이 곧 진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것 같다”고 구어칸은 말한다. “공급과 수요는 불균형을 이루었으며 .... 이는 쉽게 안정될 수가 없다.”

수요의 측면에서 주된 논쟁점 중의 하나가 바이오 연료이다. 옥수수, 사탕수수, 야자유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연료는 가솔린이나 디젤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급등하는 식유가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체 에너지원은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파스타: 스파게티, 마카로니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물가루(특히 밀가루) 반죽

[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 지난 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51.1%다. 이 가운데 쌀은 거의 자급(자급률 95.5%)이 가능하지만 밀(0.2%)이나 옥수수(0.7%), 콩(9.8%)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과 사료용 곡물을 모두 합한 곡물자급률로 따지면 26.2%에 불과하다. 축산농가 사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권이다. 프랑스(자급률 329%)나 체코(198.6%), 독일(147.8%) 등 유럽 국가들이 곡물소비보다 생산이 많은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언제 식량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자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식량기지 확보에 적극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현재 3, 4군데 해외 식량기지 후보를 정해 놓고 생산 곡물의 구매 계약 우선권 확보나 장기 임차, 용지 매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휴경지에 청보리나 호밀 등의 사료용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쌀국수나 쌀라면에 쓰이는 가공용 수입 쌀가루를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쌀 가공 식품을 자주 접하도록 해 거부감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 A. 찬란한 오색빛은 사람의 시각을 명들게 하며, 난잡한 오음의 음악소리는 사람의 청각을 혼란케 하며, 잡다한 음식의 맛은 사람의 미각을 상하게 한다. 멋대로 말을 몰아 달리며 사냥을 하는 놀이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귀중한 재물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무위자연의 도를 터득한 성인이 다스릴 때에는 오직 생명의 근원인 배를 실하게 채워주는 일을 할 뿐, 사특한 빛을 쫓는 눈을 위하는 인공적 작위를 꾸미지 않는다. 성인은 외형적 감각세계를 버리고 내실적 무위자연을 취한다.

B. 명리(名利)와 생명은 어느 쪽이 절실하나? 생명과 재물은 어느 쪽이 더 귀중하나? 명리를 얻는 것과 생명을 잃는 것은 어느 쪽이 더 걱정스러운 일이나? 그러므로 명리를 심히 좋아하면 반드시 본성을 손상하게 될 것이며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될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은 안보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언제까지나 장수할 수가 있다.

C.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잘 달리는 말로 밭을 갈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새끼 뱀 암컷까지 군마로 징발되어 싸움터에서 새끼를 낳게 마련이다. 지족(知足)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화(災禍)가 없고, 얻겠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지족의 경지로 만족하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다.

<문제 II-1>

최근의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관련해 이의 원인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식량위기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문 [나]를 참고해 논술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15점)

<문제 II-2>

제시문 [다]의 A, B, C 세 지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여기서 주장된 내용이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어떻게 가능한지 논술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20점)

<문제 II-3>

다음은 1997년~2004년의 전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해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300자 이하: 15점)

년도	생산량(백만톤)	소비량(백만톤)	년도 말 재고량(백만톤)
1997	386	376	128
1998	394	386	135
1999	408	395	146
2000	398	391	150
2001	398	409	139
2002	377	404	109
2003	386	412	83
2004	397	411	68

출처: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위 도표 자료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자.

가정 1) 2005년 이후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은 증가율을 이용한 모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SR_t = 3.00 + 0.05 \cdot SR_{t-1} - 0.40DR_{t-1}$$

여기서  $SR_t$ 는 현 년도의 생산량 증가율이고  $SR_{t-1}$ 은 전년도 생산량 증가율,  $DR_{t-1}$ 은 전년도 소비량 증가율이다.

가정 2) 2005년 이후의 소비량은 전년도에 비해 매년 일정하게 3%씩 증가한다.

가정 3) (년도 말) 재고량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만큼 변동한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주어진 3가지 가정에 따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이 결정된다면 대략 몇 년도에 (또는 2004년을 기준으로 몇 년 후에) 식량 재고량은 고갈될 수 있는지를 풀이과정과 함께 설명하시오.

※ 계산 시 주의사항

주의 1) 예측된 생산량과 소비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한다. (가령, 예측된 생산량이 425.74이면 "426"을 사용한다)

주의 2) 모든 증가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한다. (가령, 생산량 증가율이 3.74%이면 "3.7"을 사용한다)